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과 정서행동과의 관계

오 태 곤*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bullying Victimized Experience and Emotional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Tae-Kon Oh *

요 약

사이버불링의 개념에 관한 통일적 견해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관계 법령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불링의 폐해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심심찮게 각종 언론매체들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이에 그 심각성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논의와 피해경험, 그리고 피해경험 빈도 등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에 따른 정서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학생들의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정서행동인 우울감, 공격성, 학업스트레스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학생들의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 Keywords : 사이버불링, 정서행동, 우울감, 공격성, 학업스트레스

Abstract

The general opinion about the notion of cyberbullying hasn't existed yet, but in related laws it is defined as the entire behavior causing the counterpart to suffer the pain by continuously and repeatedly psycholog ic offending toward specific students with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products such as the Internet and mobile phones, and spreading the private

•제1저자 : 오태곤

•투고일 : 2013. 11. 28, 심사일 : 2013. 12. 12, 게재확정일 : 2013. 12. 17.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College of Law, Chosun University)

information or false facts related with specific students. Recently a number of accidents related with abuse of cyberbullying are being broadcast on a variety of mass media, and the argument about the severity and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bullying is moving onward. This study has a purpose as suggesting the practical alternatives to prevent cyberbullying victim of middle school students by arguing cyberbully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features such as victimized experience and frequency and the emotional behaviors according to victimized experience. As the result of this study, cyberbullying victimized experienc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motional behavior such as depression, aggression, and academic stress. As political implic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practical alternatives to prevent cyberbully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 Keywords : Cyberbullying, Emotional Behavior, Depression, Aggression, Academic Stress

I. 서 론

2011년 12월 대구에서 일어난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 '휴대전화로 통한 집단적인 괴롭힘이 주요 원인이었음'이 알려지면서, 또한 2012년 8월 '스마트폰 기반의 인스턴트 메신저의 단체대화방에서 친구들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당한 여고생이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인해, 그 악영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사이버불링은 아직 우리에게 그 단언조차도 생소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 또는 사이버폭력이다.

사이버불링은 2006년 미국 미주리에서 13세 소녀 메간 마이어(Megan Meier)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시달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하원의원인 산체스(Linda Sanchez)가 주도한 '메간 마이어법안' 혹은 '반 사이버불링 법안'이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연방법으로서 입법 시도되었다가 실패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용어로, 이후 2010년에 러트거스 대학의 신입생이었던 타일러(Taylor Clementi)가 자신의 동성애 취향이 룸메이트가 설치한 웹캠을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을 비판하여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그 심각성이 다시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그 용어의 정의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이버불링은 우리 세대 구성원들의 인터넷 의존도 심화 경향과 함께 그 심각성이 증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며 다양한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없는 초·중고생들의 경

우에는 그 피해상황이 더욱 큰데,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2012년에 발표한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초·중고생들의 13.7%가 인터넷,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비방과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며, 또한 같은 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초·중고생들 1,2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초·중고생 다섯 명 중 한 명은 인터넷, 휴대전화 통화 놀림, 욕설, 따돌림을 경험한 바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타 연령 집단에 비해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경험빈도, 경험경로, 우울감, 공격성, 학업스트레스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중학생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빈도는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중학생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경로는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중학생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에 따른 정서행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학생들의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이버불링

사이버불링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2000년 미국 뉴햄프셔대학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교육학 및 심리학계를 중심으로 '사이버불링'이라는 용어가 학문적 관심으로 대두하게 되었다.[1]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사이버불링을 온라인상의 구두적 표현으로 명예 훼손적이고, 괴롭히는 말로 차별, 개인 정보의 노출, 공격적이고 상스럽고, 경멸적인 코멘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2]

국내에서는 사이버불링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따돌림"이라는 용어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법은 2004년 1월에 제정되었는데, 이후 2012년 1월 개정에서 '따돌림'이, 2012년 3월 개정에서 '사이버따돌림'이 추가되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면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사이버불링은 비단 따돌림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협박이나 강요, 폭력 등의 전반적인 괴롭힘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를 단순히 '따돌림'으로 정의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이버따돌림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학교폭력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이버불링은 학교 내외는 물론이고,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임을 감안하였을 때에, 사이버불링을 과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의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사이버따돌림으로 단순 정의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재차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다.[3]

이 연구에서 사이버불링의 개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3에 규정되어 있는 사이버따돌림과 동일하게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정서행동

2.1 우울감

우울은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는 반성과 공상이 따르는 가벼운 슬픔으로 정의되는데 삶의 과정 중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서로 Beck(1976), Joiner와 Metalsky(1993)은 지각, 판단, 인지, 사고,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상태라고 정의하였다.[4]

Sarason과 Sarason(1996)은 우울의 정도에 따라 침울한 기분에서부터 심하게는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효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른다고 하였다.[5] Watson과 Kendall(1988)은 슬픈 또는 우울한 기분은 공포, 죄의식, 분노, 혐오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으며,[6]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나 울적한 기분상태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이나 무력감을 포함하는 정서장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심리적 상태를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7]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 규정한 DSM-IV(The fourth Edition of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of Manual of Mental Disorder)에 따르면 우울은 불쾌한 기분 또는 절망감, 과민성 또는 비판적인 감정 또는 슬픔과 같은 지속적인 증상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으로서, 개인이 일상 활동에서의 흥미나 기쁨의 상실로 정의된다.[8] 이 연구에서 우울의 개념은 미국정신의학회에서 규정한 정의와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2.2 공격성

Buss(1961)는 공격성을 대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사람에게 유해한 자극을 주는 행동이라고, Feshbach(1963)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을 해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9]

Dollarc와 Baron(1939)은 의도나 초점을 가진 공격 대상에게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를 갖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10]

그러나 전자의 경우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상해도 공격행동에 포함될 수 있는 반면, 공격의도를 가진 행동이라도 결과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게 되면 공격성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격 이론가들은 일반적으로 의도를 포함하는 정의를 받아들이고 있다.[11] 후자의 경우 Moyer(1968)는 공격성을 의도적으로 유해한 자극을 가하는 외현적 행동, 파괴적으로 다른 유기체를 향하여 행동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Grusec과 Lytton(1988)은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한 개념으로 의도만으로는 공격적인 행위를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andura(1973)는 일정한 상황에서 대인간 상호작용이 공격적인지를 결정하는 준거로 의도성을 사용함으로써 공격성은 사회적 판단이나 문화적 기준에 따라 행동자의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13] 이러한 의도성을 포함해서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Geen(1990)은 공격성이란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자극을 주면서 상해를 줄 의도가 있어야 하며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14] 또한, Hartup(1964)은 공격성은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재산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의도를 강조하였다.[15]

이 연구에서 공격성의 개념은 Bandura(1973)가 규정한 정의와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2.3 학업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란 학습자가 학업과 관련하여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유발하는 좌절, 갈등, 억압, 불안으로 인해 받게 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의 정도를 말한다.[16] 특별히, 학교 생활 장면에서의 학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내적, 외적 정신의 자극이나 압력, 압박감을 학업스트레스라고 한다.[17]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업 스트레스가 다른 스트레스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18]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입시위주와 과열 경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있다.[19]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는 동양이 서양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동양권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양에 비해 동양은 학업 성취에 대해 강조하고 더 경쟁적이며 시험 점수를 매우 중요한 자료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원인과 정도가 성이나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나 공부나 학업과 같은 문제가 주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사회와 부모로부터 쏟아지는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와 압력으로 인해 자살사고나 우울에 이를 만큼 상당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높은 학업 스트레스는 학교 부적응, 정신 건강 문제, 식이, 우울, 자살 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청소년의 학업 관련 스트레스는 수업, 성적, 시험, 숙제, 부모의 학업압력 등으로 선행 연구에서 보고한다. 이처럼 학업 스트레스로 정신 건강을 위협받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학업은 개인이 관심이 있든 없든 한국의 사회적인 문화 성향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들이 다른 어떤 재능을 키우기보다 공부를하기를 원하고 자녀의 재능이나 흥미와는 상관없이 학업에 몰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많은 수업 시간과 방과 후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과 관련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은 학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어려움 상황에서 인터넷의 유희는 청소년기의 통제 능력으로는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학업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20]

이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의 개념은 유성은(2002)이 그의 연구에서 사용한 정의와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의 고찰

사이버불링에 대한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오은정(2010)은 사이버불링에 대한인식, 가해피해경험, 빈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 경로유형, 대처방법에 대해서 경기도 지역의 중학생들의 사이버불링 실태를 연구하였다.[21]

박은주(2012)의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불링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은 성별과 자기통제력임이 확인되었고, 자기통제력이 낮으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나 자기통제력은 사이버불링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2]

김은경(2012)의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분류한 결과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예측 변수였으며, 학교환경변인인 교사와의 관계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사용시간과 같은 개인적 변인이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의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사이버불링 피해를 많이 겪는 경우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고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지만 학교폭력 피해경험보다는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실제로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을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

났다.[23]

김중길(2013)은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과 학업스트레스가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이 많은 학생들일수록, 그리고 학업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남상인·권남희(2013)의 청소년 사이버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결과, 소년 사이버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 가정환경, 또래변인 중 비행친구 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육설·폭력 경험, 충동성, 도덕적 죄책감의 변인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25]

이창호·이경상(2013)은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성별에 있어서의 사이버불링 피해와 가해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가운데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의 접속형 매체의 이용정도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전은숙(2013)은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경험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우울과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많은 이들은 우울성향과 공격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불링 가해경험 학생들보다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공격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

조윤오(2013)의 사이버불링 피해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집단이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증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었고, 이러한 우울증에 의해서 청소년들의 비행행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지금까지 살펴 본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실증연구를 통하여 중학생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에 따른 정서행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학생들의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G광역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97명 중 설문분석에 부적합한 24부를 제외하고 273부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특성
Table 1. Demographics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학생	168	61.5
	여학생	105	38.5
학 년	1학년	76	27.8
	2학년	135	49.5
	3학년	62	22.7
성적 수준	상위수준	9	3.3
	중위수준	231	84.6
	하위수준	33	12.1
경험 빈도	3회 이하	180	65.9
	4회 이상~10회 이하	76	27.9
	11회 이상	17	6.2
경험 경로	이메일	15	5.5
	메신저	73	26.7
	휴대폰	185	67.8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문항은 총 3문항으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사이버불링 피해빈도, 사이버불링경로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서행동과 관련해서는 우울감의 6문항과 공격성의 5문항, 그리고 학업스트레스의 5문항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통계패키지인 SPSSwin Ver 17.0 Kor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 정서행동의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성과 관련하여 Cronbach's α 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사이버불링 피해빈도, 사이버불링 경로와 정서행동 간의 관계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신뢰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설문문항들에 대해서 Cronbach's α 를 이

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는데, 신뢰도 검증결과, 우울감, 공격성, 학업스트레스의 alpha계수는 각각 0.75 이상으로 나타나서 설문문항들의 신뢰성 수준은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분석

2.1.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의 차이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공격성에서, 여학생은 우울감과 학업스트레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집단 간 평균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별에 따른 차이
Table 2. difference of sex

구 분	남학생	여학생	t	p
	M(SD)	M(SD)		
우울감	3.27(.60)	3.46(.59)	2.225	.118
공격성	3.41(.61)	3.23(.60)	1.227	.239
학업스트레스	3.15(.60)	3.38(.59)	.432	.271

*: p<0.05

2.1.2. 학년에 따른 정서행동의 차이

학년에 따른 정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감과 공격성은 1학년이, 학업스트레스는 3학년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집단 간 평균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년에 따른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year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F	p
	M(SD)	M(SD)	M(SD)		
우울감	3.41(.63)	3.35(.55)	3.20(.60)	1.757	1.089
공격성	3.54(.61)	3.38(.50)	3.30(.49)	1.436	.356
학업스트레스	3.33(.67)	3.45(.61)	3.58(.59)	1.324	.726

*: p<0.05

2.1.3. 성적수준에 따른 정서행동의 차이

성적수준에 따른 정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서행동에 대한 변수의 인식에 있어서 성적수준이 높을수록 정서행동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간 평균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적수준에 따른 차이
Table 4. difference of grade standard

구 분	상위수준	중위수준	하위수준	F	p
	M(SD)	M(SD)	M(SD)		
우울감	3.51(.60)	3.55(.57)	3.63(.60)	1.571	.116
공격성	3.25(.64)	3.40(.61)	3.44(.60)	2.025	.330
학업스트레스	3.35(.41)	3.51(.60)	3.63(.52)	1.536	.272

*: p<0.05

2.1.4. 경험빈도에 따른 정서행동의 차이

경험빈도에 따른 정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의 횟수가 많을수록 정서행동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간 평균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행동 중 우울감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집단 간 평균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경험빈도에 따른 차이
Table 5. difference of experience frequency

구 분	3회 이하	4회 이상~10회 이하	11회 이상	F	p
	M(SD)	M(SD)	M(SD)		
우울감	3.30(.71)	3.50(.64)	3.86(.60)	3.527	.201
공격성	3.28(.70)	3.38(.64)	3.50(.55)	1.827	3.025
학업스트레스	3.31(.66)	3.48(.61)	3.65(.60)	3.225	1.008

*: p<0.05

3.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정서행동과의 관계

3-1. 사이버불링 피해경험빈도와 정서행동

중학생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빈도가 정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을 보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빈도는 모두 정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이버불링 피해경험빈도와 정서행동
Table 6. Test of hypothesis

독립 변수	종속 변수	β	t값	p	F	수정된 R2
경험 빈도	우울감	.177	3.166	.002**	47.327	.428
	공격성	.115	2.108	.000***		
	학업 스트레스	.122	2.326	.001**		

3-2.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경로와 정서행동

중학생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경로가 정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8을 보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경로는 모두 정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경로와 정서행동
Table 7. Test of hypothesis

독립 변수	종속 변수	β	t값	p	F	수정된 R2
경험 경로	우울감	.152	2.852	.011*	33.723	.398
	공격성	.107	2.025	.025*		
	학업 스트레스	.118	2.207	.000***		

V. 결 론

사이버불링은 일반적인 집단 괴롭힘과 달리 익명성, 상시성, 신속성, 확산성, 시각적 충격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휴대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사이버불링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가 될 지를 알기 어려우며, 더구나 사이버불링은 인터넷, 이메일, 휴대전화, SNS 등을 통해 24시간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크다. 또한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매우 신속하게 확산되며, 상대가 인터넷이나 메신저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일반적인 특성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에 따른 정서행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학생들의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했는데, 연구 결과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

성에 따른 정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 성적 수준, 피해경험빈도에 따라서 각각 정서행동인 우울감과 공격성, 학업스트레스에서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이버불링 피해경험빈도 및 경로와 정서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빈도는 모두 정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우울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경로도 모두 정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경로보다도 사이버불링 피해경험빈도가 정서행동에의 영향력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대응 입법을 체계화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이버불링의 법적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이 연구에서 실증분석한 중학생 이외에도 초고교생 내지 성인들에 관련된 문제들까지 체계적인 대응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아직 미성년자인 중학생들의 연령적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의 기관과 상담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학생들의 사이버불링의 대부분이 평소 인식 관계에 있는 또래 집단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교 내에서의 인터넷 예절 관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함께 향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G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보다 넓은 지역과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Lee, Joo Hyoung., An, Soon cheol.,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Cyberbullying,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Vol.11. No.1.,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2013, p.136.
- [2] Willard, N., "Off-campus, harmful online student speech". Journal of School Violence. 1(2).. 2003.
- [3] see at FN(1), p.137.
- [4] Shin Ae, Woo. Effects of Interactive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Perceived by the Youth on the Peer Conflict, Depression and Behavioral Problem of Youth, Myongji

-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5] Sarason, I.G. & Sarason, B.R., Abnormal psychology, Hakgisa., 1996.
- [6] Watson, D., & Kendall, P.C., Common and differentiating features of anxiety depression: Current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 Distinctive and overlapping feature. San Diego, CA: Academic Press., 1989.
- [7] Seong Il, Kim Yong Cheol, Jeo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Depression Tendency and Their Home Environment. National Youth Report, 12(1), 2001. pp.5-27.
- [8] Hye won, Kim. The relations among adolescents' depression, problem solving ability, self efficacy and stressful life event.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 [9] Baek Young, Kim. The Effect of Anger Control Program on Aggression Reduction of Maladjusted Childre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1997.
- [10] Eun Hui, Jeong. The Relationships among aggressio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in internet chatting addicted adolescents. Da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3.
- [11] *see at FN(10)*
- [12] Young Suk, Jeong. A Study on Computer Games and Aggressive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Dong-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0.
- [13] Bandura, A., Aggression :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73.
- [14] Geen, R.G., Approaches to the study of aggression : Human aggression Milton Keynes : Open University Press., 1990.
- [15] You Jin, So. The Effects of Verbal-Violence Prevention Program on Friendship and Aggress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Lower Grade.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11.
- [16] Yong Rae, Kim Tae Eun, Kim. Learner's Stress, School-Related Coping and Academic Achievement. Hongik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Center. 2005.
- [17] Seong Eun, You. The Effects of Children's Perceived Academic Stress and Locus of Control on The Learning Motiv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Master's Thesis, 2002.
- [18] Byun, Ok Soon. A Study on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Their Own Stressor and Coping Style. Yeung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 [19] Heng Cherl, Yom Song Yon, Cho.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Empathy on Motivation for Parenthood and Definition of Parenthood.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007.
- [20] Eun Soo,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learning stress :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itud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ster's Thesis, 2012, p.19.
- [21] Eun-Jung, Oh. "Cyber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dolescents Culture, Vol. 15. 2010.
- [22] Eun ju, Park. "Effects on youth's self-control on cyber-bullying experienc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onsultation Welfare and Policy Kwangwoon University, 2012.
- [23] Eun Kyung, Kim. "A Study of Effect of the Predictors on Youth's Cyber Bullying",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2012.
- [24] Jong Kil, Kim, "The Effect of Violence Victimization and Academic Stress on Cyberbullying of Youths"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Psychology, Vol.9 No.2, 2013.
- [25] Sang In, Nam-Nam Hee, Kweon.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Adolescent Offenders' of Cyberbullying" ,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10, No.3, 2013.
- [26] Chang ho, Lee Kyeong sang, Lee. "An

exploration of the impact of social media use on cyber bullying by youth: A focus on network characteristics” , Studies on Korean Youth, Vol.24. No.3, 2013.

- [27] Eun-sook, Jeon. “Effects of Youth’s CyberBullying Experienceon Depression andAggressio”, Department of Lifelo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2013.
- [28] Youn oh, Cho. “The Impact of Cyber Bullying Victim Experience and the Influence of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Delinquent Behavi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0. No.10, 2013.

저 자 소 개



오 태 곤
 2001: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2003: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2005: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현 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외래교수
 관심분야: IT Convergence
 Email : t6713@naver.com